

2 종합

“무전공 안정적 정착과 교육혁신 모델 구축할 것”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우리신문은 지난 호에서 취임 1년을 맞는 김진상 총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어 취임 1년을 넘기는 지은림 서울 학무부총장이 전한 그동안의 소회,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지은림 서울 학무부총장

1. 취임 이후 1년의 소회는

1년이 너무 짧았다고 느껴진다. 학무부총장 취임 시 ‘경희는 끊임없이 혁신 중’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적인 명문 사학으로 경희대 위상을 높이려는 목표를 구성원과 공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학생상담 및 지도체제, 교육 방법, 교육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제는 혁신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경희교육의 미래를 실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혁신은 교수님을 위한 교육과 연구 환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 지난 1년 동안 마련한 경희 혁신의 청사진이 실현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2. 의미 있는 성과는

첫째, 교육 부문에서는 무전공제 도입에 대응해 새로운 열린 전공체제를 기획하고 마련했다는 것이다. 모든 단과대의 교수님 및 학생대표와 간담회를 이어가면서 소통했다.

둘째, 교수님의 교육, 연구를 위한 지원체제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우선 교수님의 글로벌 연구 환경을 위해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고, 교수님과의 공동 연구를 지원했다.

셋째,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혁신해 나가야 할지 구성원과 가능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도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하고 싶다.

3.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학무부총장 취임 시 대학주보와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육의 Re-Design’ 기획을 추진하고 있

다. 학생이 미래지향적이며 창의적인 방향으로 교육받고, 세계적 수준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교육과정, 프로그램, 학사제도 등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혁신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캠퍼스 공간, 시설, 예산 등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했다. 학사제도 개선을 위해 정밀한 분석과 정보시스템이 수반된 개선이 필요하기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며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4. 향후 주력 분야는

자율·자유전공학부의 새로운 교육체제의 안정적 정착, 거교육 차원에서는 경희교육의 미래를 창조할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학생이 미래를 향해 어떤 상황에서도 창의적으로 대처하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교육을 하고자 한다. 또한 교수님들께서도 경희안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학자이



지 부총장은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협력과 의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대학주보 DB)

며 교육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환경뿐만 아니라, 제도 및 정책적인 면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을 해나가고자 한다.

5. 대학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교수,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학도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미래는 급속한 변화, 다양한 분야의 초연계화,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를

가지고 있다.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단편적이며 고정된 형태의 교육 체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교육과정, 학사제도, 학생지원체제 등이 다양성, 유연성, 신속성을 갖추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수님 지원도 글로벌 환경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협력과 의지일 것이다.

“지역 사회 연계 강화 · 교육 글로벌 협력 확대에 힘 쓸 것”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우리신문은 지난 호에서 취임 1년을 맞는 김진상 총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어 취임 1년을 넘긴 홍충선 국제 학무부총장이 전한 그동안의 소회,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홍충선 국제 학무부총장

1. 취임 이후 1년의 소회는

구성원이 지닌 탁월한 잠재력과 헌신적인 노력을 깊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구성원의 협력과 책임감 덕에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2. 의미 있는 성과는

우선 4단계 BK21 사업에서 5개의 신규 사업단이 선정됐다는 점이



홍 부총장은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사진=학무부총장실 제공)

다. 특히, 경희대가 양자정보과학 분야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것은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일반대학원 첨단학과 정원 증원에서도 국내 최대 규모를 인가받아 연구와 교육의 질적·양적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며, 이공학계열 연구 성장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 분야에서는 연구혁신위원회를 발족한 점이다. 연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분야별 전문가위원을 위촉하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3.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교육혁신이다. 우리 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열린 전공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기존 학과는 미래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 혁신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평가된다. 앞으로는 학문 단위별 교육과정에 과감한 변화를 수시로 실행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교육혁신을 가속화하고, 학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4. 향후 주력 분야는

첫 번째는 세계적 석학을 영입하는 것이다. 연구와 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다. 세계적 석학을 영입하기 위해 Search & Recruit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다. 국제캠·지역 사회 연계 협력 모델을 개발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고, 학생에게는 첨단 기업과 연계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교육 및 연구 글로벌 협력 확대다. 세계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과 교수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해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

네 번째는 첨단과 혁신이 어우러진 품격 있는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고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학생 주도형 혁신을 지원할 것이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하며 대학 운영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5. 국제캠이 융합캠퍼스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변화는

첫 번째는 융합 학문 강화다. 다양한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형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이 융합 학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두 번째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다. 국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구축하며, 학생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교육환경 개선이다.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강의실, 실험실, 학생 라운지 등 주요 시설 확충은 물론, 그동안 미뤄졌던 생명과학대학관, 동서의학대학관, 전자정보대학관의 외관 개선을 추진하겠다. 마지막은 창업 및 산학협력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창업지원센터를 활성화해 창업이 학생의 주요 진로 선택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